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해양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

● Contents



<input type="checkbox"/> 상하이항 신(新)항만 건설 타당성 연구 시행	2
<input type="checkbox"/> APMT, MSC, CMA CGM, 아비장(Abidjan)항 제2컨테이너 터미널 입찰 참여	3
<input type="checkbox"/> 인도 구자라트 정부, 나르골항 개발 승인	4
<input type="checkbox"/> 우루과이, 라 앙고스투라(La Angostura) 심수항 개발 계획 승인	5

□ 상하이항 신(新)항만 건설 타당성 연구 시행

- 2011년, 상하이항은 컨테이너처리량과 전체 처리량에서 모두 세계 1위 항만에 오름
 - 2011년 상하이항 전체화물 처리량은 7.3억 톤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항만 화물처리량은 6.24억 톤, 내수 화물처리량은 1.03억 톤으로 집계됨
 - 2011년 상하이항 컨테이너처리량은 3173만 9천 TEU로 전년대비 9.2%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국제수출은 1,212만 TEU, 국제수입은 1,141만 5천 TEU로 집계됨
 - 상하이항은 컨테이너부두 개항 이래로 33년 만에 컨테이너 처리량 3,000만 TEU 시대를 맞이함
- 현재 상하이항 컨테이너부두와 잡화부두의 처리능력은 포화상태임
 - 장강유역의 경제발전에 따라, 상하이항의 처리량은 매년 200-300만 TEU씩 증가하고 있으나 항만건설 입지 및 항만수로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항만 발전의 장애요소로 부각
 - 따라서 증가되는 수요에 대비하여 해안선 확장 및 신(新)항만 건설 추진 필요
- 상하이 시정부는 <상하이항 신항만 부지선정 및 타당성 분석 연구>를 정식으로 실시
 - 2012년 초, 상하이시 양회(兩會)에서 상하이 신항만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시작함
 -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교통운수부 총엔지니어 쉬광(徐光)이 담당고문을 맡고, 중국공정원 원사(院士) 천지위(陈吉余)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각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프로젝트에 참여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상하이항 신항만구역 부지선정과 타당성 분석으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신항만부지의 필요성 및 실행 가능성, 장강하구의 경제전망과 항만건설과의 관계, 형샤다오(横沙岛) 구역 항만건설조건 및 부지선정, 형샤다오구역 배치계획 및 방안, 장강하구 준설작업과 항만 건설 간의 연동관계, 신항만건설의 타당성 등이 있음
 - 상하이시 정부 관계자는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신항만건설에 대해 향후 중앙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자료 : www.chineseport.cn

이주호 부연구위원 (☎ 02-2105-2890, jooho@kmi.re.kr)
강지현 연구원 (☎ 02-2105-2967, jhkang0813@kmi.re.kr)

□ APMT, MSC, CMA CGM, 아비장(Abidjan)항 제2컨테이너 터미널 입찰 참여

- 코트디부아르 아비장(Abidjan)항의 제2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및 운영사업 입찰에 약 20여개 컨소시엄이 참여하였으며, 여기에는 현 컨테이너 터미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PMT 뿐 아니라 MSC 및 CMA CGM 등 대형 선사가 포함되어 있음
 - 특히, CMA CGM은 코트디부아르의 와타라(Alassane Ouattara) 대통령과 면담을 실시한 후 아비장항의 제2컨테이너 터미널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약 2억 ~ 2.5억 유로(2.5억~3.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CMA CGM은 서아프리카의 해상무역량이 수입물동량 증가로 인해 연간 8~1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음

※ 제2컨테이너 터미널 입찰에 대해서는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157호 참조

- 한편, 아비장항의 제1컨테이너 터미널인 Vridi Container Terminal은 APMT가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60%는 프랑스 기반의 Bolloré 그룹에서 보유하고 있음
 - Vridi 컨테이너 터미널은 선석길이 1,000m, 수심 11.5m로 현재 처리능력은 약 80만 TEU 수준이며, 시설확충을 통해 내년인 2013년까지 120만 TEU로 증대할 계획이며,
 - 그리고 Vridi 컨테이너 터미널에는 CMA CGM, DEMAS, MAERSK, MSC, MOL, COSCO, CHINA SHIPPING, HAPAG LLOYD, PIL, ZIM, SAFMARINE 등의 선사가 기항하고 있음

< 아비장항 컨테이너 터미널 위치 >



< 제2컨테이너 터미널 레이아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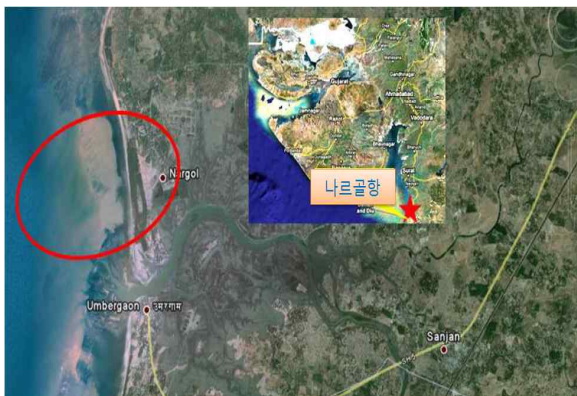
자료 : www.transportweekly.com, 2012.7.12/ af.reuters.com, 2012.7.4

송주미 전문연구원 (☎ 02-2105-2872, jmsong@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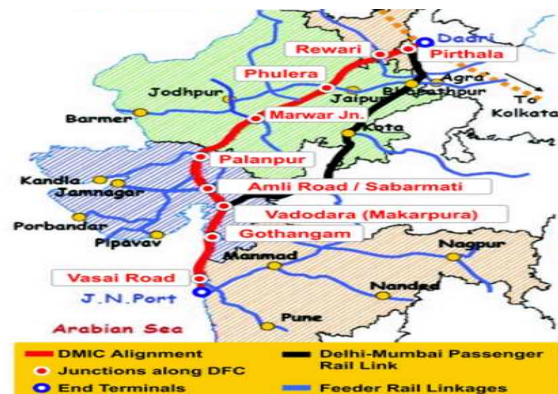
□ 인도 구자라트 정부, 나르골항 개발 승인

- 인도 구자라트 정부(Gujarat government)는 최근 인도 남부에 위치한 나르골항(Nargol Port)개발을 승인
 - 구자라트주 남부 해안가에 위치할 나르골항은 벌크, 액체, 자동차, 컨테이너 등을 처리하는 다목적항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투자비 약 Rs 4,000 crore¹⁾ 규모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나르골항은 구자라트 해양당국인 구자라트 해운위원회(Gujarat Maritime Board, GMB)에 의해 개발 진행 중인 8개의 그린필드(Greenfield)항만²⁾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임
 - 항만 개발은 수심 11~12m, 75-150 hectare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 개발은 2015~2016년간 추진될 계획임
 - 향후 나르골항 개발이 완료되면 초기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120만 TEU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금번 개발은 Cargo Motors Pvt.Ltd와 Israel ports Co.³⁾의 컨소시엄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며, 향후 나르골항이 운영되면 뭄바이의 자와할랄 네루항(Jawaharlal Nehru Port)의 적체를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
 - 아울러 구자라트 지역이 새로운 자동차 중심지로 급부상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Ro-Ro 터미널을 나르골항에 개발할 예정임
- 한편, 2012년에 1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델리-뭄바이 산업 회랑(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DMIC⁴⁾)이 구자라트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 회랑에 8차선 확대 개발 예정인 고속도로와 철도가 연계될 예정이어서 지역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

< 나르골항 위치 >



< 구자라트 인근 물류 인프라 접근성 >



자료 : www.dredgtoday.com, 2012.7.13/ www.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 2012.7.10

황현주 연구원 (☎ 02-2105-2919, julya7@kmi.re.kr)

1) 네이버환율 2012.7.18. 기준, Rs 4,000 crore = 8,284억 원

2) Mundra Port, Pipavav Port, Dahej Port, Hazira Port 등이 있으며, 민간투자 개발항만으로 추진되어 BOOT형태로 진행됨

3) Cargo Motors Pvt.Ltd는 인도 화물 운송산업을 이끄는 대표기업이며, Israel ports Co.는 이스라엘 국제항만 인프라 개발 회사임

4) 수라트(Surat)지역에서 남쪽으로 120km, 뭄바이 지역에서 북쪽으로 140km 떨어진 곳에 위치

□ 우루과이, 라 앙고스뚜라(La Angostura) 심수항 개발 계획 승인

- 우루과이 정부는 브라질 국경과 인접한 라 앙고스뚜라(La Angostura)에 중국으로의 철광석 수출을 위해 약 700만 달러 규모의 심수항 개발 계획을 승인
- 라 앙고스뚜라 개발계획은 2014년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며, 민간기업인 Minera Aratirí¹⁾가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발렌타인 프로젝트(Proyecto Valentines)의 일환으로 진행
 - 발렌타인 프로젝트는 연간 1,800만 톤의 철광석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산 단지, 선광 처리 공장, 파이프라인 송전선, 항만 터미널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프로젝트를 통해 1,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며, 국가 경제에 14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6월에 몬테비데오에서 진행된 우루과이의 Danilo 부통령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간 회담 이후 심수항 개발에 대해 중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
 - 우루과이 정부는 대서양의 심수항 개발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국의 투자가 확정 된다면 우루과이 역사상 가장 큰 투자가 될 전망이다
 - 또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우루과이의 심수항 개발은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있으며 국가 경제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기회임
- 한편, 우루과이 심수항 건설 공사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2-3년 이내에 매장이 확인되면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심수항에서 제공할 예정

< 라 앙고스뚜라항 위치 >



< 라 앙고스뚜라항 조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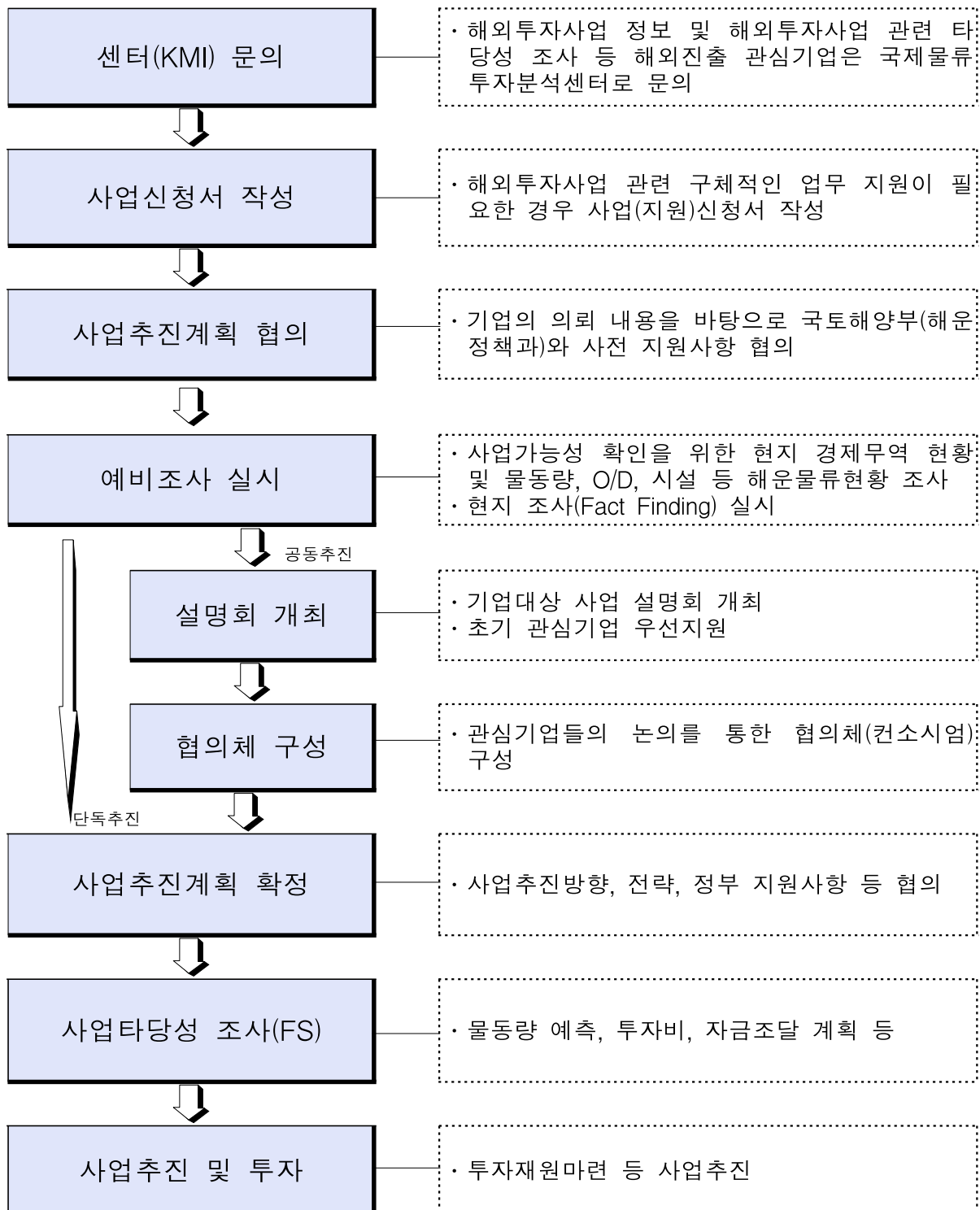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2.6.29

최은혜 연구원 (☎ 02-2105-2838, choeeunhye@kmi.re.kr)

1) 인도계 철광석 생산업체인 Zamin Ferrous의 우루과이 자회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